조계종 교육원 '율원령' 입법 예고

설립·학사행정 제도화…행자교육원령 개정도

조계종 율원령(제정안)과 행자교육원령(개정안)이 7월 27일 입법예고됐다.

율원령은 총 6장 40조로 구성됐으며 율원 설립과 인가, 학사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종령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율원은 교육원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하며, 학년 당 3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고 전체정원은 30명 이내로 한다.

율원은 율주와 율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교수(율사)를 둔다. 총림 율원의 율주와 율원장은 총림 방장의 추천으로 전계대화상이 임명한다. 그 외 율원의 율주와 율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해 운영위원장의 추천으로 전계대화상이 임명한다. 교수는 율원장의 추천으로 전계대화상이 임명한다.

율주는 승랍 30년 이상인 자로서 종사(비구니 명덕) 법계를 수지해야 한다. 율원장은 승랍 20년 이상인 자로서 전계를 받아야 하며 율원에서 교수 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교수는 승랍 5년 이상인 자로서 율원 전문과정 2년과 연구과정 3년을 이수하거나, 율원 전문과정 2년을 수료하고 율학 관련 박사과정을 수료하거나, 율원 전문과정 2년을 수료하고 승가대학(강원) 교수(강사) 경력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율원에서는 10인 내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율원이 위치한 사찰의 주지가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율원장은 당연직 부위원장이 된다.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운영위원장이 추천하며, 교육원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

율원의 직제는 율주, 율원장, 율감으로 하되, 율원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직제를 추가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율주는 사부대중의 율의를 계도하고 율원 대중을 지도한다. 율원장은 당해 율원을 대표하며 학사 운영을 통리한다. 임기는 4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율감은 교수 중에서 율원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임명한다. 율원의 실무를 총괄하며, 율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율원의 각 학년은 두 학기로 나눈다. 학기당 16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모집정원은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율원 전문과정에 입학하려면 기본교육기관을 이수해야 한다. 율원 연구과정에 입학하려면 율원 전문과정 2년을 수료해야 한다. 율원 전문과정 학위를 취득하면 승가대학(강원) 부교수(중강)로, 연구과정 학위를 취득하면 교수로 임용될 수 있다. 전문과정은 2년, 연구과정은 3년. 2년간 계속해 학인 정원(휴학 중인 학인 포함)이 반수 이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한편 행자교육원령은 이혼 과정에서 친권(양육권)을 포기하도록 세부사항을 구체화했다. 또 현 종령에서 사정표상 2개 이상의 '마' 또는 1개 이상의 '바'를 받으면 탈락이 결정되나 '갈마 사정회의'를 통해 교육원장이 최종 판정하도록 개정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동국대 신 교수 진상조사委 조사 착수

이달 7일 장윤 스님 소환 조사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산하 동국대 신정아 교수 진상조사 소위원회는 7월 31일 제1차 회의를 열고 법안 혜오 보인 스님을 조사실무위원으로 임명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조사 범위를 △신정아 교수 특별채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항 △동국대 교수 특별채용 제도 운영실태(신정아 교수 관련) △장윤 스님 이사 해임 관련사항 등으로 한정키로 했다. 또한 8월 7일 신 교수 학력위조에 대해 처음으로 의혹을 제기한 장윤 스님을 먼저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이어 2차 조사는 8월 중순경 동국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총 7명의 위원 중 소위원장 법안 스님을 비롯해 성직혜오 운달 스님 등 4명이 참석했다.

한편 소위원회는 9월 열리는 중앙종회 전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태고종 법계고시 합격자 증서 수여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8월 2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3층 대불보전에서 제10차 법계고시에 합격한 200여명을 비롯 종단 관계자 등 총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법계고시 합격자 법계증서 수여 법회를 개최했다.

법계품수식에서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제10차 법계고시에 합격한 스님들이 태고종의 종풍을 잇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원우 기자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사업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력으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력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 문의 : 02-2004-8279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운월 스님의 '비구니스님의 역할' 주제 학술대회 참관기

"티베트 비구니 계맥 논의 지속돼야"

지난 7월 18~20일 독일 함부르크대학 아시안 • 아프리칸연구소와 불교학재단은 함부르크대학에서 '불교 여성 수행자(비구니 스님)의 역할'을 주제로 '제1회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티베트 비구니 계단과 계맥 복원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번 국제회의에 국내에서는 전국비구니회장 명성 스님을 비롯한 비구니스님 35 명이 참가했다. 국제회의에 참석한 운월 스님(동국대 강사)이 보내온 참관기를 요약해 싣는다. 전문은 붓다뉴스(www.buddhanews.com) 참조.



'불교 여성 수행자(비구니스님)의 역할' 주제 제1회 국제대회 장면. <사진제공=운월 스님>

달라이 라마 주최로 독일 함부르크서 3일간 개최
명성 스님, 외국인으로는 유일하게 격려사 낭독

독일의 상업 중심 도시이자 아름다운 무역항인 함부르크에서 7월 18~20일, '불교 여성 수행자(비구니스님)의 역할'을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렸다. 한국에서는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인 명성, 수원 봉녕사승가대학장 묘엄, 율원장 적연, 前 조계종 문화부장 탁연 스님을 비롯한 비구니스님과 불교여성개발원 김인숙 원장, 이향순 교수(미국 조지아대) 등 35명이 참가했다. 또한 사캬디타(Sakyadhita, 세계여성불자협회)의 쏘모, 팔모 스님, 스리랑카의 란지니, 닥터 헤마, 스리랑카 비구니 쿠수마 등 많은 여성불자들이 참석했다.

대회 첫날 개최측의 인사말에 이어 외국인으로는 유일하게 명성 스님의 격려사가 배정되어 있었다. 이는 비구니 계맥이 존재하는 한국 비구니의 비구니 계단 설정에 대한 대회 주최측의 요청과 격려가 매우 크다는 것은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대회의 또 다른 특징이라면,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 주최로 열린 대회라는 것이다. 덕분에 세계의 남방불교, 대승 불교, 밀교의 각 전통을 간직한 스님들과 학자들이 대거 초빙되어, 율장의 계맥과 전통 및 역사를 조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토론하는 장이 펼쳐졌다. 반면 일부 율사스님들은 너무 완고해 보여 아쉬움이 남았다.

대회가 열리기 전부터 이번 학술회의는 티베트 불교에 비구니 승단을 설립하기 위해 세계 각 승가의 증명(證明)을 받기 위해 열리는 것이라는 소문도 떠돌았지만, 실제 참가해보고 느낀 문제점은 다른 데 있었다.

왜냐하면 티베트에는 이제껏 비구니가 없는데, 이는 있다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불교가 도입 될 때부터 아예 비구니 계맥(戒脈)이 들어온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티베트 비구니 승가 설립은 티베트 비구스님들에게는 전통에 없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며, 이러한 새로운 역사적인 일에 티베트의 대표적인 4종파 가운데 몇몇 린포체들은 그리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티베트에 비구니 승단을 설립하려는 취지와 계획이 주로 서양 출신의 비구니들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티베트 여성 수행자들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돌마 링의 견해에 의하면 실제로 티베트 여성 수행자들 자신의 뜻인지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았다.

서양 출신의 비구니들은 개인적으로 한국이나 대만에서 4분율(달마굽타 계통의 율장) 전통의 비구니 수계를 받았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인정이 되면 티베트 비구스님들의 '설일체유부'의 전통과 다르게 되며, 그러면 두 가지 율장의 전통이 티베트 불교에 존재하게 되는 것도 문제가 된다. 게다가 서양 출신의 비구니들이 티베트 비구니 승가의 원조가 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티베트 원로 비구스님들이 환영할 리 없고 그래서 티베트 비구스님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아 보였다. 비구니 승단의 설립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장이 마련된 것은 뜻 깊지만, 다각적인 입장과 견해가 있어 단기간에 쉽게 결정날 일은 아닌 듯 보였다.

대회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달라이 라마의 법문이 있었다. 달라이 라마는 "부처님도 여성을 출가시켰으며, 출가한 여성 가운데는 절을 짓거나 부처님 불사를 하거나 깨달음을 얻은 비구니도 있었다"며 "현 시대는 물리적인 힘이 중시되는 시대가 아니라 교육에 의해 그 능력이 평가받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티베트 여성 출가자인 아닐라들은 아직 비구니 승가는 없지만, 교육환경이 그렇게 차별 받는 여건은 아닌 듯 보였다. 법문을 듣는 기회도 비구스님들과 똑같이 주어지고, 경전을 배우거나 안거를 하는 것도 차별은 없다고 한다. 또한 게쉬(경전을 가르치는 강사스님) 자격을 일부 아닐라들도 부여받는 변화된 모습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아직 한국처럼 비구니 강사나 율사가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 비구스님들에 의해 교육받고 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수계할 때도 2부승 제도보다는 비구스님에게만 수계 받는 1부승 제도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았다.

대회가 끝난 후 21일에는 달라이 라마와 발표자들 간의 만남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티베트 비구니 승가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통도 아닌 율장 자체만의 전통으로 하길 바라며, 그러기 위해 멀지 않은 시간에 인도의 델리나 편리한 지역에 모여 각 전통의 특수한 사항이 아닌 부처님 율장의 공통부분만을 새롭게 결집하는 모임이 필요하며, 그 율은 티베트 전통인 밀교전통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고, 티베트어로 번역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전통에 따라 다르게 변한 사항은 논장과 같은 문헌에 의거해서 바르게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포살과 자자와 안거의 세 가지를 반드시 실천해야 하며, 통일된 율장을 실천하는 비구니 승단을 원한다" 등을 결정했다.

이번 대회에서 티베트 불교의 현실을 볼 때, 전통이 다른 계맥을 받아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워 보이며, 더구나 서양인 비구니가 계사가 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 정서를 읽을 수 있었다. 게다가 달라이 라마의 입장은 매우 난감해 보였다. 비구니 승단 설립이라는 시대적인 요청에 응하고 싶어도 각 종파 지도자의 동의를 얻어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세계 각 전통의 스님들과 학자들의 제의와 토론 등 여론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역사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 티베트 불교에 비구니 승단을 설립할 수 있는 순조로운 향해가 될 발판이 마련되는 것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동국대 강사

신정아 교수 사건에 대한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회의 입장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는 신정아 교수 허위 학력 사건은 우리사회 전반에 커다란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사안의 민감성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확대되면서 100년 사학 동국대학교의 위상에도 커다란 상처가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로 인하여 깊은 걱정과 우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종립대학인 동국대학교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회는 깊은 사과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질책이 있었으며, 저희 이사회는 이러한 질책들을 겸허히 수용하고자 합니다. 우선 최고의 지성을 자부하는 대학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대하여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 이사회에서는 사건의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행정절차상의 하자에서부터 시스템상의 문제점과 행정 실무적인 과오가 있었는지를 밝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분명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본 사건의 실체를 밝힘에 있어서 학교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지난 7월 23일 수사당국에 조사를 의뢰해둔 상태입니다.

현재는 학교에서 구성한 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사회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기꺼이 협조 하겠습니다. 더불어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해서도 모든 자료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계종단의 조사에 대해서도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만이 동국대학교가 다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왜곡되거나 부풀려져 학교의 명예가 현저하게 훼손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간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이 그 본질과는 다르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가 왜곡되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습니다. 나아가 사건의 본질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이를 정쟁의 대상으로 활용하여 학교의 질서와 체계를 흔들려는 시도들도 종종 있어 왔습니다. 애교심이나 애종심으로 포장된 이러한 시도들에 의한 피해는 고스란히 배우는 학생들과 학교구성원들은 물론 우리 종단에 되돌아갈 뿐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결국 학교를 더욱더 난국에 빠지게 하고 학교의 발전을 시기하는 세력들에게 좋은 빌미를 제공할 뿐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의 사건이 학사행정상의 잘못된 일이라 하더라도 그 책임은 법인 이사회에 있습니다. 조계종단으로부터 종립대학인 동국대학교의 관리감독을 위임받은 법인 이사회의 소홀과 불찰에 의하여 이번 사건이 야기되었음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참회합니다. 더불어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절차상의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학교행정이 조속히 안정되도록 하고, 학교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여 실추된 학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나가는 것 또한 법인 이사회에 주어진 피할 수 없는 책무입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과 같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크게 도약하는 명문 동국의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7. 7. 31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회